

영웅



2017. 02
Vol.16

英雄 The Hero

안보, 우리의 나아갈 길 Ⅲ

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

이달의 영웅

조국 독립을 가슴에 품고 달린
마라토너 손기정의 삶 ①

ZOOM IN

스포츠 영웅, 손기정

손환 중앙대학교 교수

손기정 자서전

반도半島를 흐른 마라톤

손기정기념관/기념재단

우리 민족의 첫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숨은 이야기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양원찬 박사

世界人

인류사 전환기에 있어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지정학적 역할

코마츠 아키오(小松昭夫) 이사장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영웅 논단

사대주의事大主義에 대한 시각

유영렬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만화

북한 더 알기 — 북한의 연애

최성국 아트디렉터

정가 15,000원

한민족의 일과 기상으로
조국 부강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Kureaura
도서출판 꼬레아우라



인류사 전환기에 있어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지정학적 역할

“

긴장 지대에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이, 미국·중국·러시아 그리고 세계의 이해를 얻어, 대립과 한의 에너지를 지양止揚 아우프헤벤하고, 한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일본열도에서부터 항구적인 평화의 흐름을 조성한다면, 한일 양국의 국민은 물론, 그 혜택은 전 세계로 퍼져 인류 항구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 환경, 건강을 창조하는 출입구입니다.

”



코마츠 아키오(小松昭夫) 이사장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강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
그러나 부드러움이 없다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

“대립의 문화”에서 “공생의 문화”로



2015년 5월 주한국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 주트네 상 패넬을 들고 있는 코마츠 이사장

긴 시간 축적되어 온 사회시스템의 붕괴로부터 핵 확산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의 요동과,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의 세계적 물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근대문화를 꽃 피어 온 지역이며,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생겨난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문제”, “동해/일본해 명칭문제”로 대표되는 대립과 원한의 에너지를 뿜어 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패쇄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립의 문화”로 번영을 누리왔으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문명으로부터, “공생의 문화”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문명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한국, 북한, 일본 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났거나 일어날 많은 문제들을 나열하고, 대립의 에너지를 지양_{止揚} 아우프헤벤으로 유도, 자원화하여, 이 지역에서 “공생의 문화”를 창조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세계적 혼란이 염려되는 가운데, 시대적 가치와 사명에 눈뜬 사람들의 예지_{叡智}와 용기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교토_{京都} 및 마츠에_{松江}에서 개최되는 제6회 국제평화박물관회의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핵 확산·지구온난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사회시스템의 흔들림으로 인해 글로벌화 된 금융시장의 요동과 「믿음信」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 등의 고갈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규모의 사회적 혼란마저 야기시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국의 힘만으로는 존속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서 인류의 예지叡智와 용기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립의 문화에서 공생의 문화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는 세계적 혼란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전환을 언제, 어디서, 누가 앞장서서 할 것인가를 모색하던 중, 아시아에서도 가장 근대 문명지역이면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제어된 대립과 원한怨念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야말로 인류의 미래 운명을 짚어줄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중개로 시작된 6자회담이 끈질긴 교섭으로 2003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엔상임이사국인 동시에 핵대국인 중국·미국·러시아가 이 지역을 세계적 시점으로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일본 간에는 ‘독도·다케시마의 영유권 주장 문제’, ‘동해·일본해의 명칭문제’ 등 근대사에서 생겨난 ‘원한怨念’의 문제가 경직된 채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이 세계의 선구자가 되어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열거하고, 대립의 에너지를 지양止揚 아우프헤벤으로 이끌어 내면, 공생의 문화를 창조할 모든 조건이 갖춰질 것입니다.

1988년,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시코마츠전기 산업 주식회사 창업자에 “지혁숙知革塾”을 세우고, 1994년 인간자연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의 전쟁과 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헌화·기부 그리고 미디어와의 대담 및 계몽 활동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즈모 대사出雲大社の 신화 “행혼幸魂 기혼奇魂”를 센게다카미사千家尊祐 공사宮司로부터 기증받았으며, 글로벌 시대의 인간학을 집대성한 4개국어(한중일영)판 “중국고전명언집”을 북경의 학원출판사学苑出版社에서 편찬,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5개국어(한중일영불)로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구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및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동참자들

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계의 현상, 한반도와 일본열도

유럽에서는 영원한 숙적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통합화폐인 유로를 만들고 그를 통해 공생문화권을 구축하여, 상이점(相違点)을 병기한 역사교과서까지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탄산 사회를 지향하며, 지하자원에 의존한 문명에서, 바람·태양열등을 이용한 지표자원문명(地表資源文明)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도성장기의 공해 문제와 오일 쇼크를 계기로 환경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며, 1992년 브라질 수뇌회담에서 “환경 입국”으로 불려져 왔습니다만, 1997년 교토(京都)협정서 체결 이후, 생산공장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공해 배출량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와 누적된 채무의 증가,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파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브프라임 사태의 발단으로 인한 자원의 물가상승 등으로 정세는 한층 더 심각한 위기로 치달



2007년 3월 안중근의사 순국기념식 참석 후 명성황후 생기를 방문한 코미츠 이사장(왼편 세번째).

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 기업의 채권 포기 에 따른 기업 재생이 빈번히 반복되어 온 결과, 정관민(政官民)간의 상호불신 확대와, 세대간 대립, 지역간 대립, 국가간의 대립 이 복잡하게 얽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사회현상의 문제점이 증폭되고, 정치가와 관료에 대한 불신이 절망과 분노로 바뀌어, 존속 살인·무차별 살인·자살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형이 과거에도 예가 없었던 스피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본질적인 문제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갈수록 혼미의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세계평화 기업가 20인 전시회에서 선보인 주트네 동상. 노벨평화상 제 1호 수상자인 베르타 폰 주트네를 기념하여 만들었다.

대한민국 사회도 저출산·고령화와 사교육비의 증가, 서울 집중현상, 국내경제의 부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까지 겹쳐, 젊은층을 중심으로 항의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어린이 유괴사건이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 양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과 일본은 사회 기반인 「믿음信」과 「분업分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내부 붕괴의 위험마저 예상됩니다. 북한은 6자회담의 장기화로 인해, 식량·에너지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핵 대국인 유엔상임국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도 국내의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국의 힘만으로 세계를 리드해 가기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원한^{怨念}과 대립지대를 상생^{相生}오토피아로 전환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를 이루고, 공업화 사회를 이룬 일본과 대한민국 그리고 지하 자원이 풍부한 북한이 각자의 역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원한^{怨念}과 대립 에너지를 지양^{止揚}아우프헤벤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환경과 건강 문제를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의 동참자들이 힘을 합하여 저탄소사회^低

炭素社会인 아시아형 모델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원한怨念을 자제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3개국(대한민국, 북한, 일본)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결과 중심의 경쟁’과 ‘대립의 문화권’을, ‘과정 중심의 경쟁’과 ‘공생共生이 양립하는 문화권(오토피아)’으로 변모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가장 준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분쟁지역에 ‘희망’과 ‘용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의 우선과제인 정전협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개국에는 보편적 정체성의 확립과 진정한 애국심이 솟아 오르게 될 것이며, 제3국에서 참가한 프로젝트 멤버들에게는 기대감과 생동감이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독도/다케시마, 동해/일본해 일본 시마네현에 의한 ‘독도(다케시마)의 날(2005년)’제정과 동해/일본해 명칭문제에 관련된 돗토리현 비문 문제(2007년)가 한일 양국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북한과 일본 간에는, 청일전쟁·명성황후 시해사건·이토히로부미 저격·안



1997년 6월 코마츠씨가 인솔한 방문단의 독립기념관 답사.

중근의사의 처형·러일전쟁·한반도의 식민지화·창시개명·강제노동·전쟁 피해·종군위안부·납치문제, 일본인 부인 귀환 등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져 세계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언제 표면화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 불씨가 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군위안부문제와 존엄의 생명

지난 5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을 지나게 되었고, 거기서 80세를 훌쩍 넘기신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운동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

습니다. 매주 수요일 집회가 있으며, 올해로 800회를 넘어섰다는 것과 그 날의 분위기에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 의경들이 포진한 가운데 일본인이 일본 국회에 사죄 청구를 시의회에서 결의한 보고서와 유치원생들의 합창과 젊은 댄서들이 위문공연으로 위안을 받고 계신 모습은 뭐라고 해야 할 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들의 활동을 이대로 방치 한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궁당해도 반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일 양국 간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일본인은 물론이며, 한국인의 견식과 지혜·용기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에게는 생물로서의 생명과 다른 생물들에게는 없는 '존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전쟁 중, 엄청난 고통과 수난으로 인해 존엄의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한국인, 일본인, 인간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전쟁으로 잃어버린 할머니들의 '존엄의 생명'을 찾아드리는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근본적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2007년 4월 워싱턴포스트에 뉴욕, 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를 중심으로 대뉴욕지구 121추진연대가 '위안부의 진실 The truth about COMFORT WOMEN'을 게재하였으며, 이어 6월에 게재 된 일본 국회 의원



2015년 5월 주한국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주트네 상 패널에 인사하고 있는 코마츠 이사장.



2007년 7월 남경대학살 기념관 포럼에 참가한 코미츠 이사장

이나 저명인의 광고로 이 문제가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문제의 존재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상하원, 캐나다의회, 네델란드의회, EU 유럽의회, 필리핀의회, 오스트리아 의회에서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를 해야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일본인의 견식을 주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대대손손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억이천만명의 전쟁희생자를 기록

18세기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혁명은 영

토의 획정(画定), 국민의 국정 참가, 이동과 언론의 자유등, 현 사회시스템의 주류인 국민국가를 창출시켰습니다. 그 후 약 250년간 일본 총 인구에 맞먹는 일억이천만명의 전쟁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긴장 지대에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이, 미국·중국·러시아 그리고 세계의 이해를 얻어, 대립과 한恨(恨)의 에너지를 지양(止揚) 아우프헤벤하고, 한반도와 마주 보고 있는 일본열도에서부터 항구적인 평화의 흐름을 조성하여, 인류의 긴급사안인 지구온난화에 대표되는 환경 문제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표되는 건강문제를 국경을 초월해서 대처하는 평화 사업이야말로 인류가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근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들을 모두 기록하는 ‘메모리얼 타워’ 세계 전쟁과 평화기념관을 세워 네트워크로 연결, 실제의 모든 전시물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종합한 평화 전쟁 전시장과 세계를 IT로 연결한 국제 평화·환경·건강 회의장의 건립·운영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북한, 일본은 세계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한 역할이 명확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화해(和解)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축된 세계평화 모델은, 현재의 분쟁 지대의 사람들에게 평화의 흐름을 조성하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는 “도덕없는 경제는 범죄이며, 경제를 수반하지 않는 이론은 실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것을 보라”, “추양(推讓)”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변국가로 일터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손들에게 부채를 떠넘기고 있는 사람들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와 함께 과거의 전쟁에

서 생겨난 ‘한恨’을 뒤로 떠넘긴다면, 자손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δρα큐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한민국은 6·25전쟁으로 인해 잣더미가 되었으나, 서방의 시스템과 세계 각국의 지원과 국민의 노력이 합쳐져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도움을 받았던 미국과 값싼 석유를 대량 공급 받았던 중동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풍족함을 누리면서 작은 암초(독도/다케시마)나, 바다의 명칭문제(동해/일본해)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양국의 광경이



2014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주트네 여사 타계 100주년 행사에 주트네 조각 제 2호가 전시되었다. 오른쪽은 조각 예술가 로레마 님.



2012년 5월 3일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장에게 안중근 의사 독립필사본을 전달하는 코마츠 이사장

지금까지 도움을 주었던 나라의 사람들과, 수십억 명에 이른다고 하는 하루에 1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 질까요? 인간으로서의 인식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여, 우리들이 세계 평화 모델을 창안하는 것이야 말로 한일 양국이 함께 부흥하며, 지금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세계인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적 지방자치제도는, 제국주의 열강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를 시점으로 19세기말에 골격을 만들었고, 제 2차대전 후에도 수정을 거듭해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현행의 도도부현(都道府県)제도는 모든 악(諸惡)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후, 수출 주도의 고도 가공 무역과 지방교부세로 토목 건축 주도의 내수경제 체제하에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謳歌)했습니다. 현재는 세계에 제조 공장을 전개해서 그 수익을 국내로 가지고와 국내 공장과 연계하여 사회시스템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발휘해 왔습니다만, 실제 경제에서 극단적으로 동떨어진 금융 파생 상품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결과, 심각한 사회 모순이 허용이 불가능한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

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점에서 도주제(道州制) 의논이 시작되었지만, 정말로 도주제가 필요한 지역에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기득 권익을 확보하고 있는 지사, 시장, 의원, 경제인 및 관공서에 낙하산 인사한 단체들에 방해를 받아, 기업파탄, 근로 빈곤층, 자살자, 난병의 대량 발생을 초래하면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의 방치는, 과거에 비추어보면 민족주의 출현과 전쟁으로 이어져, 근접 국가에 막대한 손해는 물론, 자국민들에게도 비참한 죽음과 오랜 동안 고난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핵 확산과 브로드밴드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국가간의 군사적 충돌이 아닌, 테러와 범죄, 정신적 압박으로 인한 문화와 구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내전' 양상이 현저하게 두드러집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타 지역과의 보완관계가 성립되도록 문화·자연환경·산업기반·인구·면적 등에서 새로운 자치제인 도주(道州)를 기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도주(道州)경영의 3대 요체(要諦)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단독 또는 도주간 연계로 완수할 것인가.
- ② 다른 지역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것인가.
- ③ 지역내 부의 재분배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일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등 전 세계 의식주가 해결되는 지역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모든 개혁이 실행되어 신속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내부 붕괴가 시작되고 후일 엄청난 복구 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라 사려됩니다.

도주제(道州制)의 시초로, 한반도 대안(對岸)에



2003년 10월 일본 돗토리 현의 중국공무원인 연조원에서 공자 맹자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코마츠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

위치한 일본의 중부지방(시마네현, 돗토리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과 세계 제일의 현수교로 연결되어 있는 서부지방을, 1,200만명을 수용하는 주^州로 만들고, 주^州훈^訓을 “평화·환경·건강”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州도^道는 인류 최초의 원폭투하로 인해 패전이 앞당겨져, 전^戰화^火를 모면하고 전^戰후 책임을 질 지역으로서 운명지어진 산음중해신지호권^{山陰中海宍道湖圈}에 듅니다. 여기에 주^州도^道를 두면, 중국서국주^{中國四國州}가 동해·일본해를 낀 유라시아대륙을 정면에서 포착하고 있다고 국제적 이해를 얻어, 가장 적절한 평화에 대한 의사 표시가 될 것입니다. 주^州도^道 지역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현과 동해 일본해 비문 삭제 사건으로 유명해진 돗토리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립을 조성한 곳에서 평화의 흐름을 창조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로야마 사부로^{시로야마 사부로}의 저서 『지휘관들의 특공』과 이것을 테마로 한 NHK 보도로 널리 알려진 독일과의 기술 제휴로 생산한 함정 폭격기 「스이세이^{隼星}」을 사용한 최후의 특공대장 나카츠루대위가 지도교관을 한 곳입니다. 제 2차대전 말기 일본 본토 결전을 위한 육해군 국내 최대 항



1998년 7월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식량 지원
2005년 1월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구원금 지급



2010년 7월 코마츠전기 서울지사 개설 기념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로부터 명예장을 수상하는 코마츠 이사장

공기지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나카츠루대위의 판단’이 전후의 일본을 구했다며, ‘일본 최후의 사무라이’로 존경받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 왼팔을 잃은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씨가 탄생시킨 캐릭터를 이용한 「요괴 로드」가 최근 문을 열어 인기를 얻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옛부터 사철^{砂鉄}·벼농사·발효문화를 통해 가야국 때부터 한반도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은 양국에 전해오는 문

헌·사적·지명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국西國은 헤이안시대에 4백여년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한 고보 대사 쿠카이弘法大師空海の 탄생지이며, 고찰古刹을 수행하는 서국여든여덟군데西國八十八箇所가 있어 중요한 문화제로서 많은 사람들의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제 6회 국제평화박물관회의 글로벌 시대를 맞아 여 세계인류사의 시점에서 주훈州訓을 정하고, 이것을 일본과 세계에 조언을 받으며 다른 주州의 주훈州訓도 결정해 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집결한 것이 국훈國訓이며, 이 구현화 과정의 차이에서 몇개의 정당이 생겨난다면 21세기의 새로운 의회제 민주주의가 탄생할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를 접한 일본과 한국이 함께 검토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곤란한 현상은 '공생의 문화'를 낳는 진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대

책에만 시종한다면 내부 불신에서 오는 붕괴는 불가피합니다. '원한怨念 에너지'에서 생겨난 '대립의 문화'를 경제와 양립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향하여, '공생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회의를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 6회 국제평화박물관회의 및 분과회分科會 그리고 이즈모出雲포럼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군위안부이었던 분들의 오랜 아픔과 고통 그리고 연세를 생각한다면 일각의 유예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다면, 그녀들의 생존 중에 '존엄의 불'이 다시 피어날 것이며, 여기에서 영구 평화의 흐름이 시작되어, 인류 역사상 '존엄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국민은 물론, 그 혜택은 전 세계로 퍼져 인류 항구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 환경, 건강을 창조하는 출입구입니다. 대한민국, 북한, 일본, 그리고 세계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빌며 기다리겠습니다. 영웅

人類史の転換期における、 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 地政学的役割

2008年 10月

一般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

理事長 小松 昭夫

強くなければ生きられない、
優しかなければ生きる資格がない

対立の文化から共生の文化へ



2015.5 韓国日本大使館前の慰安婦少女像横でズットナーパネルを持つ小松理事長

長い間に蓄積された社会システムの歪みから核拡散、地球温暖化が進み、そのうえグローバル化した金融が動揺、食糧・エネルギー・鉱物資源の世界的高騰が始まっています。

環日本海地域はアジアで最も進んだ近代文明地域でありながら、歴史的背景から竹島独島領有権、海洋呼称問題に代表される抑制された対立・怨念エネルギーを生み出し続けています。現在の閉塞感を打破するには、対立の文化の上に繁栄し行き詰

まった文明から、共生の文化の上に花開く文明への転換以外に道はありません。

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日本の、過去、現在、未来に想定される諸問題を列挙し、対立のエネルギーを「止揚／アウフヘーベン」に導く資源として生かし、この地域が世界に先駆け共生の文化を生み出す時です。世界的混乱が懸念される状況になり、時代とこの地域の使命に目覚めた人たちの叡智と勇気が試されています。

京都及び松江にて開催されます第6回国際平和博物館会議へのご参加を心よりお待ちしております。

核拡散、地球温暖化、そして長い間に蓄積された社会システムの歪みから、グローバル化した金融が動揺、「信」の崩壊が進み、食糧・エネルギー・鉱物資源の世界的高騰を生じ、世界規模での社会混乱さえ懸念される 状況を迎えています。

一国だけでは存続できないグローバル時代を迎え、人類の叡智と勇気が試される時がきました。対立の文化の上に繁栄した文明から、共生の文化の上に繁栄する文明への転換以外に、世界的な閉塞状態を解決する道はありません。その転換をいつ、どこから、誰が先駆けとなって推し進めるべきかを模索するうち、アジアで最も進んだ近代文明地域でありながら、歴史的背景から制御された対立・怨念エネルギーを生み出し続けている、朝鮮半島と日本列島に、人類の命運を担う重要な役割がまわってきたと認識しています。

中国政府仲介による六カ国協議が、粘り強い努力の中で2003年以降断続的に開かれています。これは国連常任理事国であり核大国の中国、米国、露国がこの地域を、世界的視点からいかに重要視しているかを示しています。

朝鮮半島と対岸の日本列島の間には日本海東海呼称問題、竹島独島領有権主張に代表される近代の歴史から生まれた怨念が、硬直状態で今日に続いています。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日本で、世界に先駆け、過去、現在、そして未来に想定される諸問題を列挙し、対立のエネルギーを止揚（アウフヘーベン）に導き、共生の文化を生み出す条件が整ってきました。

1988年、日本国島根県松江市の小松電機産業株式会社創業の地において「知草塾」を立ち上げ、1994年人間自然科学研究所設立を通じ

て、20年にわたり国内外で講演会シンポジウムの開催、出版、銅像建立、世界の戦争と平和記念館訪問と献花、寄付、メディアでの対談、啓蒙学習活動を通じて今日に至っています。特に本年は、出雲大社の神語「幸魂奇魂」を千家尊祐宮司様に頂き、日中韓英の四カ国語で、グローバル時代の人間学「中国古典名言集」を、北京の学苑出版社で編纂、発表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活動記録はホームページに日中韓英仏の五カ国語で掲載しています。これまでの活動ができたのも、国内はもとより、韓国、中国を始め、世界のたくさんの賛同者のおかげであり、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世界の現状・朝鮮半島と日本列島

ヨーロッパでは永年宿敵であったドイツとフランスが中心となり、統一通貨ユーロによる共生文化圏を構築し、相違点を併記した歴史教科書を共有、また世界に先駆け低炭素社会を目指して、地下資源文明から、風、太陽光などを利用した地表資源文明へ転換する努力が目に見える形で始まっています。

日本では高度成長期の公害とオイルショックを契機に環境・省エネ技術開発が進み、1992年のブラジルサミットから環境立国といわれてきまし

たが、1997年の京都議定書締結以降、生産工場における削減は進んだものの、全体の排出量は大幅に増加しているのが実態です。近年は少子高齢化と累積債務の拡大が進み、健康保険・年金の破綻懸念、サブプライム問題に端を発する資源高騰などにより一気に不安が高まってきました。また、破綻企業の債権放棄を伴う企業再生が頻繁に繰り返された結果、政官民の相互不信が増大、世代間対立、地域間対立、国家間対立などが複雑に絡まり、出口の見えない状況になっています。



2007.3 安重根義士殉国記念式に参席した後、明成皇后の御陵を訪れた小松理事長

様々な社会現象が増幅し、政治家、官僚に対する不信と絶望が怒りにつながり、尊属殺人、通り魔的殺人、自殺と不可解な事件が多発しています。死刑が過去例のないスピードで執行されています

が、これも本質的な問題解決にはならず、ますます混迷の度を深めているように思われます。韓国社会も少子高齢化、教育費の暴騰、ソウル一極集中、国内経済の不振などに、米国産牛肉輸入問題が重なり、若者を中心とした抗議行動が全土に広がり、子どもの誘拐事件が増えるなど、社会不安の様相を呈しています。このままでは両国とも、社会の基礎である「信」と「分業」が機能しなくなり、内部崩壊さえも予想されます。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おいても六カ国協議の長期化により、食料・エネルギーなどで困難な状況が続いていると思われます。核大国であり国連の常任理事国でもある米国、露国、中国も、国内に大きな問題を抱えており、世界を強力にリードすることが一国では困難な状況になっています。



2013.9 世界の平和事業化20人展で披露されたズットナー像。女性初ノーベル平和賞受賞者

怨念と対立地帯をオウトピアに



1997.6 小松理事長は視察団を結成、韓国独立記念館を訪問し、日本人として初めて献花並びに寄付。

世界で今、最も急がれていることは、アジアでいち早く近代化を進め、工業化社会を作り上げた日本と韓国、そして地下資源が豊富な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が、それぞれの役割を果たすことから怨念・対立エネルギーを止揚に導き、環境と健康問題に国家民族と、世界の賛同者が力を合わせ、低炭素社会のアジア型モデルを生み出すことです。

戦争に至らず、かつ怨念を制御しながら持続している現在の三カ国の状態は、世界で初めて、結果重視の競争と対立の文化圏を、過程重視の競争と共生が両立する文化圏（オウトピア）に変えるために、最も条件がそろっている地域といえます。このプロセスは出口の見えない紛争地帯に希望と勇

気を提供することにつながり、最も緊急のテーマである停戦協定が期待できます。そして三カ国には普遍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立と真の愛国心が芽生え、他国からのプロジェクト参加者には生きがいと誇りが生まれると思います。

竹島独島、日本海東海

島根県による「竹島の日」制定(2005年)、日本海東海呼称に関わる鳥取県の碑文問題(2007年)が日韓両国で大きく報道されました。また、小泉純一郎首相の訪朝(2002年)と靖国神社参拝により、日本列島、日本海、朝鮮半島、そして中国が緊張地帯であることが国内外に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日本の間には、日清戦争、明成皇后暗殺、伊藤博文の狙撃、安重根の処刑、日露戦争、朝鮮植民地化、創氏改名、強制労働、戦争被害、従軍慰安婦、拉致問題、日本人妻未帰還などの問題が未解決のまま残っています。

力の均衡が破れ世界が不安定化すれば、こうした問題はいつ表面化しても不思議ではありません。些細なことが発火点となり大きな災難につながったことは、過去の歴史を見れば明らかです。

従軍慰安婦問題と尊厳の命

偶然、2008年5月の訪韓時に日本国旗たなびく日本大使館前で、80歳を超えた元従軍慰安婦の方々の日本に対する抗議活動に遭遇しました。毎週水曜日に行われており、800回を超えていると現地で聞き、その雰囲気と回数に強烈な衝撃を受けました。装甲車とたくさんの韓国警察官に護られる中で、日本人による国会謝罪請求の市議会決議の報告、幼稚園児の合唱、若い男女の踊りによる慰めを受けておられる姿は、なんとも言えないものでした。

見過ごすことは彼女たちが亡くなるのを待っているといわれても仕方がありません。これは日韓両国家と民族の崩壊につながる本質的なことが問われていることであり、日本人はもちろんのこと、韓国人の見識と智慧と勇気が問われていると気づきました。人類には生物としての命と、他の生物にはない尊厳の命があります。彼女たち



2015.5 韓国日本大使館前の慰安婦少女像とズットナーパネルに挨拶をする小松理事長



2007.7 南京大虐殺記念館の改築記念式典にあわせて開催された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小松理事長。

は戦争中、大変な受難によって尊厳の命を失いました。私たちが日本人、韓国人、人間としての自覚があれば、彼女たちの戦後の長く困難な尊厳の命の獲得活動を放置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はずで

す。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たくさんの方々が努力してこられました。根本的解決に至っていません。そして2007年4月にワシントンポスト紙に市民グループによって「慰安婦の真実」という意見広告が掲載され、続く6月に掲載された日本の国会議員や著名人の連名による意見広告で、この問題は広く世界に知れ渡りました。結果として、米国上下院、カナダ議会、オランダ議会、EUの欧州議会、フィリピン議会、オーストラリア議会で、日本政府が公式謝罪を行うよう決議されました。強制力こそありませんが、日本人の見識が問われており、グローバル時代に、これを無視

することは長きに渡って深刻な影響が広がると認識しています。

1億2000万人の戦争犠牲者の記録

18世紀のアメリカ独立戦争、フランス革命は、領土の画定、国民の国政参画、移動・言論の自由など、今日の社会システムの主流である国民国家を生み出しました。ここに至る約250年間で、日本の総人口に匹敵する1億2000万人の戦争犠牲者の上に、今日の豊かな時代があります。

緊張地帯である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その対岸の日本が、米国、中国、露国そして世界の理解を得て、対立と怨念のエネルギーを止揚し、朝鮮半島と対岸の日本列島から確かな平和の流れを生み出し、人類緊急の課題である地球温



2014.6 オーストリア・ウィーンでズットナー女史没後100周年記念事業でズットナー2号像を披露。右は銅像製作者の彫刻芸術家イングリッドロレマ氏。

暖化に代表される環境問題、そして鳥インフルエンザに代表される健康問題に、国境を越えて取り組む平和事業を人類は必要としています。

ここに、一つのプロジェクトを提案いたします。近代の戦争による死者を全て記録するメモリアルタワー、世界の戦争と平和博物館がネットワークでつながり、実際の展示が一方所で見られる写真と映像による総合平和戦争展示場、世界とITで結ばれた国際平和環境健康会議場の構想・建設・運営を通じて、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日本の、世界恒久平和実現への役割が明確になり、結果的に和解は進むと思われまます。こうして生まれた世界平和モデルは、現在の紛争地帯の人々に平和の流れを生み出す勇気と智慧を提供することにつながります。中世日本の代表的な思想家であり、大きな影響を与えた二宮尊徳翁は「理念なき経済は犯罪、経済なき理念は戯言」「一家を廃して万家を興す」「推譲」などの言葉を残しています。少子高齢化がますます深刻になり、仕事も近隣諸国にどんどん流出している状況にも関わらず、今の生活を維持するために子孫に負債を先送りする人はエコノミックアニマルといわれます。これに過去の戦争から生じた怨念を合わせて先送りすれば、子孫の夢と希望を食べてしまうドラキュラになってしまいます。



20125 オランダ・ハーグの李偉烈士記念館長へ安重根義士の遺墨「獨立」のレプリカを伝達する小松理事長

日本は第二次世界大戦、韓国は朝鮮戦争による焼け野原から、西側社会の枠組みの中で世界各国の支援を受け、国民の努力と相まって、今日の豊かな社会を築いてきました。今、恩恵を受けた米国、安い石油の大量供給を受けた中東諸国は、非常に困難な状況を迎えています。豊かさを享受しながら、小さな岩礁や、その海の呼称を問題とし、多大なエネルギーと時間を費やす両国の光景は、これまで恩恵を受けた国々の人々や、十数億人いるといわれる一日一ドル以下で暮らす人々の目にはどのように映るのでしょうか。人間としての認識があれば、このような状況を一日も早く脱し、私たちが世界に平和のモデルを生み出すことは、日韓両国が復興し、今日の発展に至るまでに多くの恩恵を受けた世界の人々に対する、当然の義務と責任です。

日本の道州制

日本の都道府県制度は、帝国主義列強の中でどう生き延びるかという視点から19世紀末に骨格をつくり、第二次大戦後も修正を加えながら現在に至っています。科学技術の発達と世界情勢の激変の中で、現行の都道府県制度は諸悪の根源と認識しています。日本は戦後、輸出主導の高度加工貿易と、地方交付税による土木建築主体の内需経済体制のもと高度経済成長を謳歌しました。現在は世界に製造工場を展開し、その収益が国内に持ち込まれ、国内工場との連携で社会システムが機能しています。金融はその周辺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ましたが、实体经济から極端に掛け離れた金融派生商品が大量に出回るようになった現在、社会矛盾が許容不可能段階にまで及んでいます。

行き詰まった諸問題を解決するという視点から、道州制議論が始まりましたが、最も道州制が必要な地方において、無知か、現実を直視しない既得権益をもった知事、市長、議員、経済人及び官公庁天下り諸団体に阻まれ、企業破綻、ワーキングプア、自殺者、がん代表される難病の大量発生を招きながら、議論は低調なままです。

こうした現象の放置は過去においては、ナショナリズムの台頭と戦争につながり、近隣諸国に甚



2003.10 日本・鳥取県の中国庭園燕趙園に寄贈した孔子孟子像の銅像除幕式に参席した小仏理事長。

大な損害を与え、国民にもおびただしい死と長い間の苦難を強いてきました。

核拡散とブロードバンドが進展した今日の世界情勢においては、国家間の軍事的衝突ではなく、テロと犯罪、精神的な圧迫による、文化と構造から発生する陰湿な「新たな内戦」の様相が色濃く見えてく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この難局を打開するためには、国内外の他地域と補完関係が成り立つように、文化・自然環境・産業基盤・人口・面積から、新たな自治体である道州の枠組みを考える必要があります。世界の中で持続的に有意義に生きられる道州経営の三大要諦は

- ① 世界の中でどのような役割を単独または道

州間連携で果たすか

- ② 他地域に、どのような役割を期待するのか
- ③ 地域内の、富の再配分システムをどのように構築するのかです。

です。そしてこれは日本だけではなく、韓国においても、また世界の衣食住の足ったどの地域においても、いえ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世界経済が混乱を始めた現在、あらゆる改革に先行して速やかに実行しなければ内部崩壊が始まり、この修復にはとてつもなく大きな代償を払うことになると思われます。道州制の先駆けとして、朝鮮半島の対岸にある日本中国地方と、世界一のつり橋でつながった四国地方を、1,200万人を擁する州とし、州是を「平和・環境・健康」と定める。州都は人類最初の原爆投下により敗戦が早まり、戦火を免れ、戦後責任を果たす地域として運命付けられた山陰中海宍道湖圏に置く。ここに州都を置けば、中国四国州が日本海東海を挟んだユーラシア大陸を正面から捉えていると国際的に理解され、最もふさわしい平和への意思表示になります。

州都が「竹島の日」を定めた島根県、東海・日本海碑文問題で国際的な論議を呼んだ鳥取県ということを考えれば、対立を生み出したところが平和の文化を生み出す特別の使命をもった地であるということもできます。この地は、城山三郎



1998.7 大韓赤十字社に朝鮮への食料支援。
2005.1 日本赤十字社に朝鮮への救援金。

著『指揮官たちの特攻』とそれをテーマとしたNHKの報道で広く知られた、ドイツとの技術提携で生まれた艦上爆撃機「彗星」を使った最後の特攻隊長中津留大尉が指導教官をしていた地です。第二次大戦末期の日本本土決戦のための陸海軍の国内最大の航空基地の集積地でもありました。

米国では「中津留大尉の判断」が戦後の日本を救ったといわれ、「日本最後の侍」として尊敬されていると聞き及んでいます。また戦争により左腕を失った漫画家水木しげる氏のキャラクターが並ぶ「妖怪ロード」が近年誕生し、集客力のあつる観光地となっています。古くには製鉄・稲作・発酵文化を通じて、伽耶国の時代から朝鮮半島と特別の縁があったことは両国に伝わる文献・史跡・地名から明らかです。



2010.7 小松電機ソウル支社開設記念式で大韓赤十字社・徐英勲前総裁から名誉証を受証する小松理事長

また四国は平安時代に世界に例のない400年の平和を築くの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弘法大師空海誕生の地であり、その縁を訪ね、古刹を歩く四国八十八箇所があり、貴重な文化遺産として多くの方の巡礼をうけています。

第6回国際平和博物館会議

グローバル時代を迎え、世界人類史的視点から州是を定め、これを日本、世界に問う中で、ほかの州の州是も定まってきます。その総和が国是であり、この具現化のプロセスの差異により、いくつかの政党が生まれれば、21世紀の新しい議会制民主主義が生まれます。

難しい時代を迎えた日本、そして韓国ともに検討に値する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今世界で起きている困難な現象は、共生の文化を生み出す陣痛とも捉えられるとともに、これに参加せずに放置、もしくは対策のみに終始すれば、内部不信からの崩壊は不可避となります。怨念エネルギーによって生まれた対立の文化を、経済と両立するプロジェクトで止揚に導き、共生の文化を生み出すための会議を、10月6日から始まる第6回国際平和博物館会議・分科会と、その後の出雲フォーラムの中で開催したいと思います。先に述べました、従軍慰安婦であった方たちの長い間の苦難と年齢を考えれば、一刻の猶予もありません。このプロジェクトが動き出せば、彼女たちの生存中に尊厳の火が再び灯り、ここから恒久平和の流れが始まり、人類の歴史の中で尊厳の火は永遠に消えることはなく、日韓両国の国民はもとより、その恩恵は広く世界に及び、人類恒久の財産となることでしょう。これは真の平和、環境、健康を生み出す入り口です。

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日本、そして世界の皆様の賛同を、心より念じています。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사명으로부터

안중근 의사 순국104주기추도 및 국제교류회 만찬회 인사말

2014년 3월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코마츠 아키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기 추도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해 주신 안응모 이사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에 비해 안중근의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는 국민의 영웅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류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박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세계 핵 안보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헤이그는 이준 열사가 100여 년 전 만국회의장에서 세계강대국을 향해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알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묵고 있던 호텔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이준 기념관이 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통한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는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헤이그 이준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안중근 의사의 『독립』이라는 유묵의 복사본을 안중근 의사 숭모회의 안응모 이사장님의 협조와 양해로, 그리고 원본(原本)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도 허락을 받아, 이준 기념관에 전달하였고 지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수)



2014년 3월 유가족들과의 사진(좌측앞:안중근의사의 외손녀인 황은주여사, 왼쪽에서 4번째 증손자 안도용씨).

또 지난달에는 중국 하얼빈역 내의 안중근 기념관에도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을 보고, 안중근 의사는 더욱 세계의 영웅으로 인식되어 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미완성결작 『동양평화론』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견문을 넓히기에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추측건대 안 의사는 『세계평화』를 이미지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박수)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움직임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세계적인 혼란의 조짐이 보입니다. 하지만,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이 시대가 인류의 밝은 미래가 열리기 직전의 때라고 인식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혼란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난 25년간 인간자연과학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지만, 제 나이도 이미 칠순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소감

(주)코마츠코리아 이사 김미정

일본인인 코마츠 이사장님의 짧은 인사말 중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끝없는 존경의 표명, 그리고 한 민족의 영웅이 아닌 인류사적 영웅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듣고 참석자 모두가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기에 큰 박수와 환호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헤이그 이준 기념관에 『독립』 유묵 복사본을 전달하고, 하얼빈역 기념관 방문을 통해 안 의사의 실제 발자취를 찾아간 행동이, 오늘 안 의사를 정말 세계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진심이 증명되었고, 코마츠 이사장님의 활동을 잘 몰랐던 분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평가하는 발언에도 큰 감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칠순을 넘으면 서의 기분을 담담히 이야기하신 것도, 지금까지의 활동이 인류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진솔하게 실행해 왔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역이 끝나고 자리에 돌아와 보니, 주위에서 코마츠 이사장님의 인사말에 많은 분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인사말을 해주신 것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5개국어번역판 바위보다 물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2016년 1월 제작:
Felix Villanueva
Ingrid Rollema
Marianne Kleijwegt
Akio Komatsu



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使命より

安重根義士殉国104周年追悼及び国際交流会晩餐会の挨拶

2014年3月

一般財団法人 人間自然科学研究所理事長

小松昭夫

皆様こんばんは。

今日、安重根義士殉国104周年を迎える記念すべき場所にご招待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招待いただきました、安應模理事長はじめ、関係者の皆様、そして、ご臨席されている皆様へ感謝を申し上げます。

私は、安義士について、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様ほどは勉強が出来ていないと思いますが、私なりに彼についていろいろと研究してまいりました。

私は、安重根義士は、民族の英雄だけに止まらず人類の英雄にするべきと思います。(拍手)

今日、韓国の朴槿恵大統領がオランダのハーグに世界核安保会議に参加されています。ハーグは、李準烈士が100余年前、万国会議場で世界列強に向けて、朝鮮が独立国であることを



2014.3 遺家族と一緒に写真。前右：安義士の孫娘、後ろの左4番目曾孫さん

知らせようとした都市です。しかし、彼のその願望が叶わず、泊まったホテルで死体で見つかりました。その現場に李準記念館が出来ており、韓国においては、辛い時代の歴史の現場という、意味ある場所で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

私は、2年前、ハーグの李儁記念館を訪問したことがあります。

その場所でも安重根義士を世界に知らせ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安重根義士崇慕会の安理事長のご協力とご了解、また原本の所持者の方の了解を得て、安重根義士の遺墨『独立』の書のレプリカをハーグの李儁記念館にお渡しし、現在も展示されています。

(拍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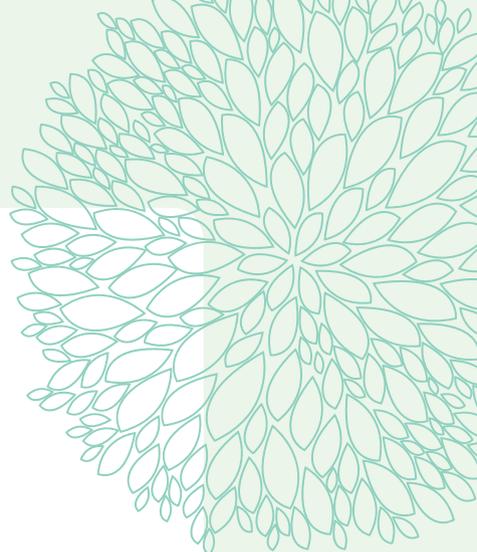
また、先月は中国のソルビン駅内の安重根記念館も訪問してきました。そこを訪れたたくさんの人を見て、安重根義士は、ますます世界の英雄とされて行くことを確信しました。

安重根義士は、獄中で未完の傑作『東洋平和論』を残しました。当時は、今のような交通手段がなかったので、もっと広い世界を見て歩くのはそう簡単ではない時代でありました。おそらく彼は『世界平和』をイメージして『東洋平和論』を書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拍手)

最近のウクライナのクリミア半島の動きや、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など、今世界はとてども混乱しています。しかし、「夜明け前が一番暗い」という話がありますように、今の時代は、人類の明るい未来が開く直前で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それは、このような混乱をどのように活受け止め、どのように活かしていくかによるものでしょう。

これまで25年あまり、人間自然科学研究所を通じて、いろんな活動をしてきましたが、私ももうすぐで古希を迎えます。もうそろそろ、今までの活動の花を咲かせ、実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時期がき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皆様の応援と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ひ致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感想

(株)小松コリア理事
金美正

短い挨拶の中に、安義士に対する限りない尊敬の表明、安義士はひとつの民族の英雄ではなく、人類の英雄という表現を日本人の小松社長から聞かされて、参加者の皆様はとても嬉しかったと思います。そこで烈々拍手と歓声がありました。

ハーグの『独立』の書の寄贈、ハルビン駅の記念館訪問を通じた実際の行動を聞いて、彼を本当の世界の英雄と思っていることが証明出来、これまで小松社長の活動を良く知らなかった人にも強い認識が出来たと思います。

100年前と現代の違いから見る安義士の東洋平和論の再評価の発言についても、大きな感銘を受けていると思いました。

人間的には、70歳の古希を迎えるに当たっての気持ちを、淡々と述べられましたので、これまでの活動が人類史における使命感を持って、真摯に果たそうとする気持ちで行って来たことを共感してもらえ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通訳が終わって席に戻ると、周りの方から社長の挨拶に「とっても感銘を受けた」というお礼をたくさんいただきました。

素晴らしいスピーチ、韓国人として感謝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参照資料 5カ国語対訳岩より水

 日本語
  英語
  韓国語
  中国語
  ドイツ語

2016年1月制作：
フィーリックス・ピラヌーバ
イングリッド・ロレマ
マリアヌ・クレイジュベクト
小松昭夫



시간 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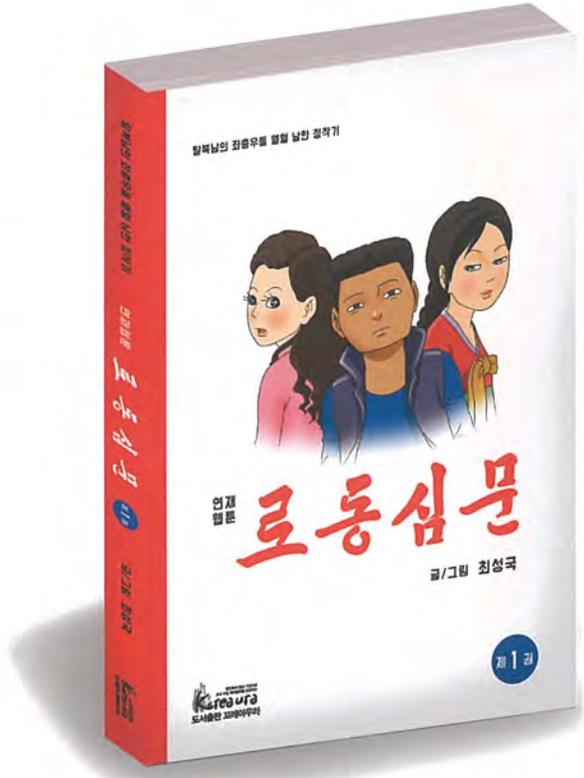
다가올 통일 시대 대비
특별 기획 웹툰 연재 만화

로동심문

탈북민의 좌충우돌 열혈 남한 정착기

70여년 분단된 채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남과 북. 그러나, 단군 조선 이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한 민족으로 같이 살아야 할 단일 민족, 통일 후 겪게 될 남북간의 혼란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남북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해 특별 기획한 연재 웹툰 만화 『로동심문』, 네티즌들의 열화같은 요청에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값 12,000원

미 국무성 초청 UN 총회 행사 참석 (2016년 9월)



'Breaking the Information Blockade:
The Impact of Foreign Media in North Korea

북한의 정보 장벽 허물기

- 외부 미디어 투입의 중요성 및 효과

좌) 미국무성 부장관 앤토니 블링컨 연설 모습.
우) 웹툰작가 최성국 연설 모습.

전세계 30여개 언론에 소개된 웹툰 '로동심문'

마음의 벽을 허무는 만화 - KBS

탈북민의 정착기를 그린 화제의 만화 - MBC

처음 보는 웹툰 장르, 공부되는 만화 - 조선일보

남북한 문화 차이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현실 - 중앙일보

문화를 통해 남과 북을 잇는 만화 - 채널A

스마트폰으로 보는 한반도의 반쪽 세상 - 워싱턴포스트(미국)

한 탈북자의 남한생활 - 문화적 오해(차이)로 겪는 에피소드 - AFP(프랑스)

탈북민이 겪는 문화적 차이 - 글로벌타임즈(중국)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그린 만화 - MARE(네덜란드)

원민족의 열과 기상으로
조국 부강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Koreahurra

도서출판 **고레아우라**

바른 생각, 바른 출판사
고레아우라 (02)574-7300
www.koreahurrah.net

* 웹툰 '로동심문'은 PC,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로동심문

검색